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장애인 체육시설 65개소에 스포츠 휠체어 170대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계기 될 것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전국 장애인 체육시설 65개소에 ‘다종목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휠체어’ 170대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 휠체어는 장애인 체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써 휠체어 농구, 휠체어 탁구, 휠체어 럭비 등 지체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용품이다.

그러나 종북에 따라 500~600만원까지 육박하는 스포츠 휠체어의 높은 가격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 영역에

서 개인이나 장애인 체육시설이 자체적으로 스포츠 휠체어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컸다.

2018년에 시행한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중 ‘운동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13.6%)’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비용 지원(27.1%)’,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14.5%)’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장애인체육회의 협조를 얻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 4월과 8월에 일선 장애인 체육시설의 스포츠 휠체어 수요를 조

사하고 다종목 스포츠 휠체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각 시·도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10월 초부터 각 기관의 일정에 따라 시도별로 스포츠 휠체어 전달식을 개최한다. 또한 휠체어가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 휠체어에 물품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의 포용적 행정을 추구하는 스포츠 휠체어 보급 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된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지원되며 생활체육을 실제로 즐기는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스포츠 휠체어 보급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이 직



접 만든 사업과 예산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 보급한 스포츠 휠체어를 보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

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차 정기회의

10가구에 생필품 등 물품 전달

영암군 금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규환, 민간위원장 고재남)는 지난 30일 오후 2시 금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지역특화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내년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2020년 연합모금 ‘이웃 사랑, 행복더하

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마친 후, 복지사각지대 10가구에 생필품 등 물품을 직접 전달하고 안부살피기를 병행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공동위원장인 금정면장은 “올해 우리면 지역특화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광주 남구,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범죄 전력 점검

광주 남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범죄 전력 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2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살거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이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명단을 취합한 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범죄경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취

업 제한 사유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락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해당 시설을 폐쇄할 수 있으며, 범죄 전력이 있는 취업 중일 때에는 시설 기관의 장애인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안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신안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등 11개 복지사업 760건(기초생활보장 475건, 그 외 보장 285건)에 대하여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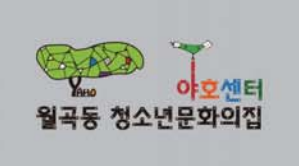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

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의 자료를 반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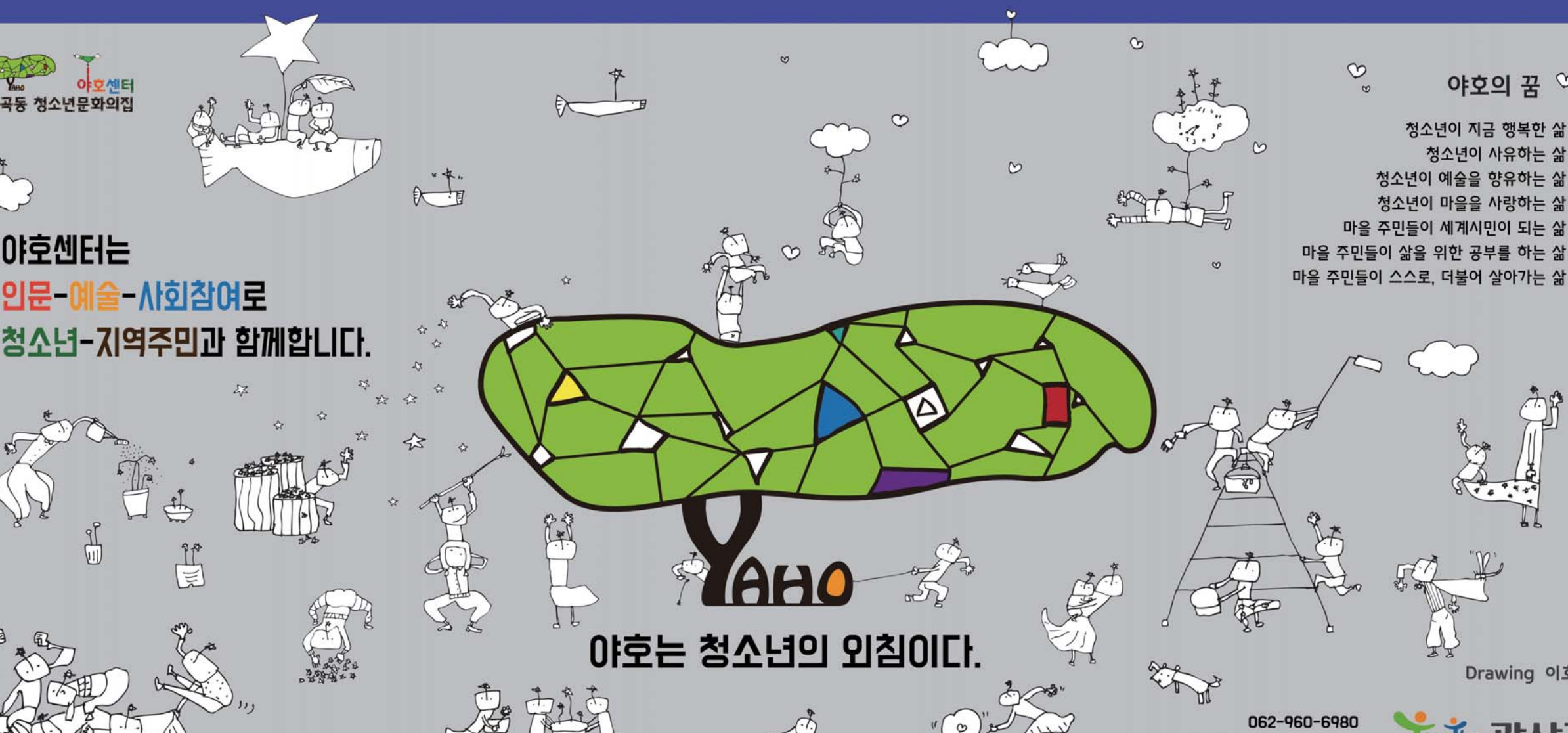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및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세대에 대하여 결과를 사전에 통지하고, 12월 31일까지 이

의신청기간을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신안군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하반기 확인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여 복지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보장중지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지원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